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독서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책 읽는 도시' 프로젝트

산업·경제 - 민간 기업협회·상회 회비 감액 의무화로 기업의 부담 완화

사회·복지 - 슈투트가르트 빈곤 콘퍼런스 2023

사회·복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소년 대상 교양·직업 프로그램

도시교통 - 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

- 고령자·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보행 중심의 교통정책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	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독서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책 읽는 도시’ 프로젝트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드러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 ‘책 읽는 도시’ 프로젝트는 피렌체시의 2023년도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도시의 숨겨진 독서 공간을 공유하는 지도를 만드는 등 책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배경과 목적

- 이탈리아 대도시 중 최초로 ‘책 읽는 도시’로 발돋움
 - 피렌체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탈리아에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최초로 피렌체시가 ‘책 읽는 도시’로 선정. 이를 계기로 피렌체시는 관광도시를 넘어 교육도시로 발전하고자 함
- 독서 활동 장려는 피렌체시의 2023년도 가장 중요한 정책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드러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서라는 행동을 제시
 - 건강 및 의료, 인종차별, 성차별, 교육, 환경 문제 등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 활동으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림
 - 독서를 통해 사회 이슈들을 다루고 함께 논의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큰 의미를 둠
 - 도시의 성장 측면에서 독서의 중요성 인식
 - 독서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최고의 지름길. 개인의 성장이 곧 도시의 성장이며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도시의 의무라는 것이 피렌체시의 의견
 - 독서 활동을 즐겁고 의미 있게 하려고 도시의 크고 작은 인프라 확장 작업 진행

주요 내용

- 독서 공간 지도 만들기(Desegnamo la mappa dei luoghi della lettura : Let's design the map of reading space)
 - 도시 곳곳에 분포한 숨은 독서 공간을 찾아 독서 공간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
 - 지도를 만드는 데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이며 다양한 홍보 통해 참여를 장려

- 설문 사이트를 두 달 동안 오픈하여 독서 공간을 추천받음
- 개인, 독서 모임, 도서관, 기관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공간의 조건
 - 책 교환이 이루어지고 생각과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 도서관, 서점, 공원, 정원, 문화공간, 북카페, 축제공간, 극장 안 카페, 책장이 있는 바(bar) 등 도시의 어떤 곳이든 책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능
- 시민의 추천을 받은 공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도 만들기의 목표
 - 피렌체의 정보 분석 전문가나 소셜 벤처 기업과의 협업으로 도서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최대한 쉽고 보기 좋은 지도를 만들 계획
- 피렌체 독서 협정(Patto per la lettura : Agreement for reading)
 - 피렌체시는 책이라는 상품의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 시민에게 독서 및 만남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정 프로젝트를 시작
 - 도서관, 서점, 출판사, 작가, 북카페, 학교, 대학교 등 책과 연관된 모든 개인과 단체가 대상
 - 피렌체시의 다양한 서점과 출판인의 적극적 참여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는 중
 - 피렌체시는 출판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와 정기 모임을 계획 중
 - 독서 협정을 맺은 대상들의 역할
 - 도시 내에 독서를 통한 만남이 넓게 퍼지고 독서가 시민들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
 - 평소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교육, 독서 자료 등의 자원들을 접근 가능 하도록 만드는 것
 - 경제적, 사회적 제한으로 독서 활동이 어려웠던 시민을 적극 돕는 것
 - 정기 모임을 통해 정보의 업데이트,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적극 참여하는 것
- 이 외에도 도서관, 교육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 ‘도서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라는 프로젝트로 독서 경험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독서 버스, 책 교환 공원 등 다양한 활동을 협업
 - 피렌체 대학교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 관련 연계 프로젝트 진행
 - 도서관 사서, 교육자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 워크숍, 필요 자원 무료 제공
 - 벤처 기업들과 협업하여 누구나 디지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도시 유산으로 보관되어 있던 피렌체시에 관한 고서적, 정보들을 시민에게 오픈

정책 평가 및 의의

- 누구도 제외 없이 모든 시민의 지적, 사회적 성장에 의미를 부여한 피렌체시의 적극적 활동에 많은 시민이 크게 감동함
 - 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이 동일한 경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의의
- 대두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적 접근이 아닌,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지적으로 접근하여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https://cultura.comune.fi.it/dalle-redazioni/una-mappa-della-lettura-citta>

<https://cultura.comune.fi.it/pagina/patto-la-lettura>

<https://cultura.comune.fi.it/dalle-redazioni/finenze-vince-il-bando-citta-che-legge>

<https://www.lanazione.it/finenze/cronaca/finenze-vince-il-bando-la-citta-che-legge-1.8390294>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민간 기업협회·상회 회비 감액 의무화로 기업의 부담 완화

중국 베이징시 / 산업·경제

베이징시는 지난 2020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에 등록된 민간 기업협회·상회의 회비 수령액을 낮추고 운영 내역 공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이행사항을 제시. 하지만 기업협회·상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시는 올해 5월 더욱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기한까지 상정하며 이행을 의무화

배경

- 업종별 민간 기업협회·상회는 중국의 합법적 민간 조직으로 기업협회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개발자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고, 상회는 정부와 상인, 상인과 상인, 상인과 민간인 사이의 관계를 중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하지만 일부 기업협회·상회의 과도한 회비 수령과 기타 불법적 요금 수령으로 민간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받고 있어 중국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섬
- 베이징시의 사회 행정 업무 전반을 주관하는 시 민정국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에 등록된 기업협회·상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 회비 상한선의 합리적 설정, 회비 수령 기준의 제정·개정은 절차에 따라 회원 총회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 등
 -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설정하고 흑자는 최대한 적게 남긴다는 원칙에 따라 서비스 요금 수령액을 결정하고 회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 은행·증권·보험·선물·자산평가 등 서비스 요금 수령액이 높은 업종은 회원들의 경영 상황과 부담 능력 및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요금 수령액을 결정 등
 -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협회·상회 차원의 자격 심사를 통한 요금 수령, 업계 내 영향력을 이용한 입회와 요금 납부 강제 등 불법적 회비 수령의 자체 검사와 처리
 - 회계감사 보고서와 연간 수입·지출 등 운영 내역을 회원들에게 공개, 신용중국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위임·대행 사항과 요금 수령의 항목·성질·내용·기준·근거 및 회계감사 상황 등을 대중에게 공개 등



[그림 1] 신용중국 인터넷 웹 사이트의 기업협회·상회 회비 수령 상황 공개 페이지 캡처 사진

- 하지만 기업협회·상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시 민정국은 올해 5월 더욱 구체화된 사항들과 함께 기한까지 상정하며 이행을 의무화

주요 내용

- 면제할 수 있으면 면제하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한다는 원칙에 따라 경영난에 처한 회원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비와 서비스 요금 수령 항목을 면제·감액하고 흑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요금 수령 항목을 감액, 금융기관과 자연독점 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 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을 양보
- 신용중국 인터넷 웹 사이트에 공개된 요금 수령 정보 중 변경 내용을 업데이트, 서명된 신용서약서와 함께 위법 행위와 행정 처벌 및 이상 활동 여부 등 많은 정보를 시 민정국의 사회조직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



[그림 2] 베이징시 민정국 사회조직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 인터넷 웹 사이트 캡처 사진

○ 기한 산정

- 매년 4~5월: 자체 점검·시정
 - 매년 5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의 요금 수령 정보뿐 아니라 요금 수령 항목의 면제·감액 여부와 이에 따라 기업이 면제·감액받은 액수, 혜택받은 기업 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이익을 양보해 다른 기업이 면제·감액받은 액수 등의 정보도 시 민정국에 보고
- 매년 6~9월: 무작위 검사
 - 시 민정국은 시 발전개혁위원회와 시 시장 감독국 등과 함께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이는 일부 기업협회·상회를 합동 검사와 제3자의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 회계 감사를 실시
- 매년 10월: 정리와 개선
 - 허위 조작과 은폐 누락, 시정 미비 등이 있는 기업협회·상회에게 해당 내용에 따라 행정처벌·신용징계·공개노출·연간검사강등·평가강등 등의 조치를 취함

시사점

- 회비 등 요금 수령액을 의무적으로 낮추게 하는 등 민간 영역인 기업협회·상회 운영에 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지만 흔치 않은 조치인 만큼 서울시가 시에 등록 된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https://www.beijing.gov.cn/zhengce/gfxwj/202103/t20210326_2330189.html

http://mzj.beijing.gov.cn/art/2023/5/5/art_371_641422.html

정민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

슈투트가르트 빈곤 콘퍼런스 2023

독일 슈투트가르트시 / 사회·복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는 주도의 빈곤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4회 빈곤 콘퍼런스(4. Armutskonferenz)를 개최. 취약계층의 삶은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되었는데 거기에 더해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임대료 상승으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에 빈곤 콘퍼런스 2023은 6개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 정치인 및 취약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빈곤 문제를 더욱 가시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해결 방안과 방지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토론. 또한 빈곤층 내 문제를 인식하고 갈등 완화와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

4회 빈곤 콘퍼런스 개요

- 독일 내 빈곤에 대한 정의와 배경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취약계층이 꾸준히 크게 증가
 - 독일 내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음(예를 들어 여가 활동, 여행이나 건강한 음식 섭취 등에서 제약이 있음)
 - 독일 내 빈곤은 굶주림이나 노숙과 같은 절대적 빈곤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소득에 따른 커뮤니티 참여도와 관련하여 상대적 빈곤과 관련 있음
 - 독일 내 취약계층은 1인 가구 월 소득 1,251유로(약 180만 원), 성인 2명과 14세 미만 자녀 2명의 가족 기준 월 소득 2,627유로(약 38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은 대부분 수치심, 무지 또는 자만심 때문에 주변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제도권 밖에 머물다가 도움의 기회를 놓침
- 취약계층의 위기에서 비롯한 사회적 문제
 - 슈투트가르트시는 독일 안에서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대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
 - 2020년 기준 슈투트가르트시 인구 63만 명 중 5만 명 이상, 약 8.2%가 사회적 혜택에 의존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매해 상승하는 전기·가스 요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임대료 상승 때문에 취약계층은 더욱 사회에서 고립됨
 - 취약계층의 고착화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들 간 응집을 약화시킴
 -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부정적 영향과 도시에 대한 신뢰 부족 초래

주요 내용

- 상대적 빈곤은 당사자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건강 문제, 교육의 부재, 사회적 고립 또는 차별이 포함됨
- 물질적 부족, 사회적 배제나 제한된 기회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상호 영향을 끼치기에, 가난을 예방하고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다양한 정책 조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동등한 생활조건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의 각자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가능케 함
- 슈투트가르트시는 빈곤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려고 다음의 6개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
- 주제 1: 주택 및 주택 공급
 - 주택 건설, 임대료 상한제, 시의 토지 매입, 사회적 측면의 주택 취득 등의 주제를 다룸
 - 특히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이나 난민 주택 공급 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주제 2: 사회적 및 문화적 참여
 - 평등한 사회적 및 문화적 참여를 위한 조건에 대한 주제: 보너스카드(저소득층 지원금), 디지털 참여 및 교통권
 - 취약계층은 개인 컴퓨터 구매나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어려움. 이런 상황을 디지털 참여의 배제라고 정의
 -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월정액 교통권은 24.5유로(약 35,000원)로 여전히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임
 - 보너스카드를 통해 저렴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 제공
 - 하지만 홍보 미흡으로 여전히 사용률이 저조함
- 주제 3: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 청소년 및 싱글 부모 지원,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관련 주제
- 주제 4: 취업 기회의 추가 조치
 - 고용주, 직업센터, 구직자의 원활한 통합 작업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관련 주제
- 주제 5: 건강
 - 이주 유럽 시민, 무주거인, 제3국 국적자 등은 종종 건강보험의 부재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음
 - 2022년 기준 최소 600명의 의료 보험 없는 사람들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의료 지원을

받았으며, 보험료 미납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은 훨씬 많음

-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치료 지원 방안, 대기질과 소음, 도시 내 운동공간 등에 관련한 주제

○ 주제 6: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제공

- 슈투트가르트시에서 처음으로 식품 부족에 대해 논의
- 어린이와 노인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사에 접근하는 방안, 비만 아동, 온실가스 배출, 지하수, 미세먼지 등에 관련한 주제
- 코로나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슈투트가르트 시민들이 건강한 식품 섭취나 식당 방문이 어려워짐
- 올해 어느 교회에서 매일 약 750개의 식사를 무료 배급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약 100개 더 많은 숫자임
- 행정, 사회적 기관, 교회, 재단, 푸드 셰어링, 시민 기부와 함께 적극적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가 필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유엔 플랜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며 ‘빈곤 종식’을 위한 17개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

○ 슈투트가르트시는 2018년부터 지침에 따라 노력하고 있으며, ‘빈곤 종식’ 목표에 따라 빈곤한 사람들의 수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https://www.stuttgart.de/leben/soziales/sozialplanung/armutskonferenz/#sechs-foren-an-verschiedenen-orten>

<https://www.stuttgart.de/service/aktuelle-meldungen/mai-2023/stuttgarter-armutskonferenz-2023-neue-massnahmen-zur-bekaempfung-von-armut-und-ausgrenzung-erarbeitet.php>

<https://www.hwwi.org/fileadmin/hwwi/Publikationen/Partnerpublikationen/Berenberg/Stadtportrait-Stuttgart.pdf>

<https://unric.org/de/17ziele/>

<https://www.wsi.de/de/wsi-mitteilungen-wsi-verteilungsbericht-2022-armut-grenzt-aus-44606.htm>

정윤주 통신원, yoonjoon@gmail.com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소년 대상 교양·직업 프로그램

쿠알라룸푸르시 / 사회·복지

쿠알라룸푸르시청(DBKL)과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는 공공임대주택에 교양·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니어스 르마자(GENIUS Remaja) 센터를 설립. 저소득층 청소년이 문화예술 교양을 쌓고 안정적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

정책 배경

-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니어스(GENIUS)’ 프로그램
 -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2010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니어스 이니셔티브 7개를 발표
 - 교육부 산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 가정의 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GENIUS Negara), 자폐아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GENIUS Kurnia), 과학·기술·공학·수학 영재 대상 프로그램(GENIUS STEM Talent), 예술 분야 영재 대상 프로그램(GENIUS Seni)을 운영
 - 대학과 연계하여서는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GENIUS@Pintar,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연계), 이슬람 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GENIUS Insan, 말레이시아 이슬람과학대학교 연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GENIUS Remaja,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연계) 등이 있음
-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필요성 제기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가 매년 평균 4,000건을 기록
 - 2012년은 6,020건으로 가장 높은 범죄 건수를 기록
 -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은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커서 이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과 돌봄서비스 필요성 제기
 - 공공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 공공임대주택(People's Housing Project, 말라이어로 Program Perumahan Rakyat, PPR이라 함)은 700스퀘어피트(약 21평)~900스퀘어피트(27평)로 주택 전용면적이 좁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움
 - 이에 교육부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와 연계해 청소년이 문화예술 교양을 쌓고 안정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교양·직업교육센터 지니어스 르마자를 운영

지니어스 르마자 센터

○ 지니어스 르마자 개요

- 쿠알라룸푸르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3세~19세 청소년 대상의 무료 교양·직업교육센터
 - 지니어스 르마자는 말레이어로 ‘재능 있는(GENIUS)’ ‘청소년(Remaja)’을 의미
-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는 2010년부터 지니어스 르마자 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 주말에는 제과제빵,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노래와 악기, 사진 촬영, 버튼 배치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 평일 오후 수업은 이슬람 경전 읽기, 문해교육, 한국어, 방과 후 학습
 -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한국어와 방과 후 학습(수학, 영어, 말레이어, 영어)은 온라인으로 진행
- 쿠알라룸푸르시청(DBKL) 승인하에 공공임대주택에 센터 설립
 - 2020년 기준 스리 폰타이 공공임대주택(PPR Seri Pantai), 판타이 리아 공공임대주택(PPR Pantai Ria), 데사 공공임대주택(Desa Public Housing Rejang), 무히바 공공임대주택(PPR Kg Muhibah) 등 4곳에 센터 설립
 -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는 쿠알라룸푸르시청과 스마트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니어스 르마자 센터 인허가 적합 여부와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센터 설립
- 2020년 기준 청소년 6,798명 참여
 - 이 가운데 20%가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75%는 취직 또는 창업에 성공



[사진 1] 지니어스 르마자 제과제빵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 (출처: 지니어스 르마자 페이스북)

<https://www.kosmo.com.my/2021/02/10/6798-ikuti-program-genius-remaja/>
<https://www.facebook.com/GENIUSRemajaKPM/>
<https://www.iautism.edu.my/genius-kurnia/>
<https://www.igi-global.com/chapter/genius-remaja-as-an-initiative-towards-empowering-at-risk-youth-in-a-digital-society/251651>
<https://www.thesundaily.my/local/genius-remaja-provides-skills-programs-to-instill-positivity-in-b40-teens-DA5075335>
<https://www.bernama.com/en/videos/?v=61292>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도시교통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은 2023년 7월부터 유료 주차 미터기 시행 시간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가장 늦게 시행하는 등 지역별로 순차대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민과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 수행 이후에 도입할 예정. 샌프란시스코시는 주차요금을 통해 시내 대중교통체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시민의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

배경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시내 대중교통 체계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
 -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하여 현재까지 저조한 상태
 - 2023년 회계연도 기준 교통요금 수익은 2019년 대비 43%에 불과
 - 연방정부에서 그간 지급해 왔던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도 지급이 중지되어 재정 부담이 더욱 클 예정
-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은 대중교통 운행량을 줄여 예산 효율화를 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서 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을 발표
 -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사용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을 추진
 -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소유 7개 다리의 통행세를 추가 부여하여 샌프란시스코 광역권 대중교통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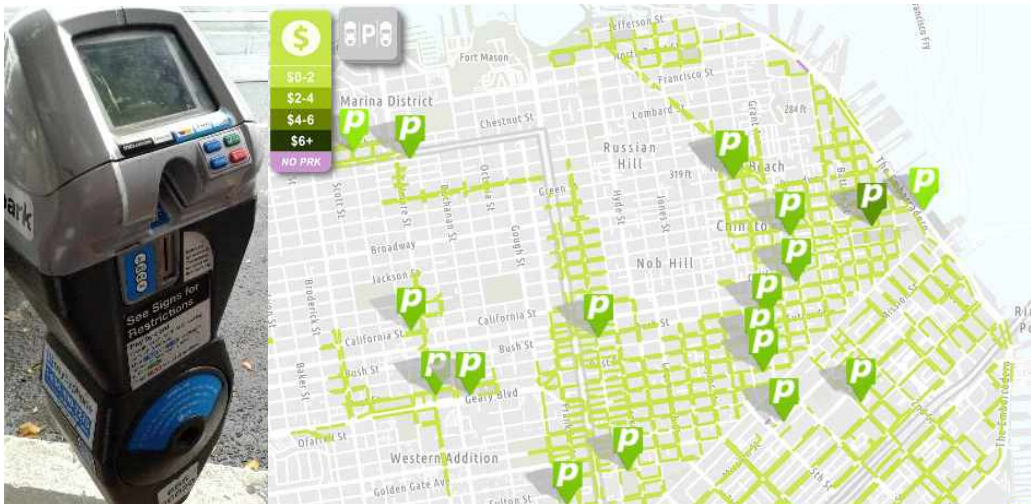


[그림 1] 샌프란시스코시 교통국 예산 예측치 및 월간 교통요금 수익

(출처: 샌프란시스코 교통국 2023 위원회 워크숍 자료)

유료 주차 미터기 개요

- 미국 지자체에서는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노면 주차 시에 주차 미터기(Parking Meter)를 설치하여 주차 수요를 관리하고 세수를 확보
 -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2017년부터 수요반응형 가격제(Demand-responsive Pricing)를 시행하여 실시간 주차 수요에 따라 차등적인 주차요금 부과
 -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주차 미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4,800만 달러 규모로 예상
 - 샌프란시스코시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 미터기를 운영하며 일요일에는 무료 노면 주차를 허용



[그림 2] 샌프란시스코 유료 주차 미터기와 수요반응형 주차요금 가격제 예시

(출처: 샌프란시스코 교통국 홈페이지)

확대 시행 내용

- 이번에 발표한 주차 미터기 변경안은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기존에 무료였던 일요일 주차 역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전환
- 변경안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
 - 주요 관광지 등 교통혼잡구역을 우선으로 시행하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늦출 계획

기대 효과와 함의

- 유료 주차 미터기 확대 시행은 자동차 사용에 대한 과세가 교통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며 동시에 개인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논의된 정책
 - 샌프란시스코시를 비롯한 많은 미국 도시들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
 - 시민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와 달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세수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이미 저조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저해할 수 있음
- 교통국에서는 이번 변경안으로 추가 수익을 연간 1,850만 달러 상당으로 예상
 - 추가 확보된 세수는 대중교통망 지속 및 보존을 위해 활용될 예정
-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관광지나 상업지역에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
 - 야간 주차하는 차들이 감소하여 저녁 시간대 손님을 위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주차공간을 찾아 배회하는 차량이 줄어 교통사고 및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주차요금이 오히려 상권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대할 가능성을 우려
 - 특히 도심에 거주하되 개인 주차공간이 없는 시민은 도로 주차가 불가능할 때에 값 비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과다
- 이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5월 말, 원래 여름부터 시행을 계획했던 해당 정책을 지연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상권 영향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도입하기로 결정
 - 시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당사자와 비용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터기 확대 시행을 지연
 -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외에도 지역 상권 등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판별하고 영향 정도를 평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

<https://www.sfgate.com/bayarea/article/san-francisco-extending-parking-meter-hours-18102469.php>
https://www.sfmta.com/sites/default/files/reports-and-documents/2023/02/02-07-23_mtab_item_5_financial_update_and_transportation_2050_-_slide_presentation.pdf
<https://www.sfmta.com/getting-around/drive-park/parking-meters>
<https://www.sfmta.com/demand-responsive-parking-pricing>
<https://www.governing.com/transportation/bay-area-transit-scrambles-to-piece-together-funding>
<https://www.sfchronicle.com/bayarea/article/parking-18123427.php>

송 태 수 통신원, taesoo.song@berkeley.edu

고령자·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보행 중심의 교통정책

말레이시아 타이핑시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 최초의 역사문화유산 도시인 타이핑(Taiping)시는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전기버스 운행과 보행성 개선으로 고령자와 관광객을 위한 교통정책을 시행

정책 배경

- 낮은 출산율·고령화 대응 전략 필요성 제기
 - 말레이시아 보건부(MOH)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6.5%
 -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
 - 말레이시아는 205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022년 3분기 신생아 숫자는 10만 9,3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
 - 전체 인구 대비 14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2021년 23.6%에서 2022년 23.2%로 감소
 - 말레이시아 내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타이핑
 - 페락주 주도인 타이핑은 2019년 기준 인구 31만 800명 중 16.8%가 60세 이상 고령자
 - 타이핑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C)에 가입
- 말레이시아 최초의 역사문화유산 도시
 - 타이핑은 주석 광산으로 경제 부흥을 이끈 중심 도시
 - 주석 광산으로 부를 축적한 행정·상업의 중심지로 말레이시아 최초의 철도, 교도소, 동물원, 호수공원 등 최초의 역사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도시

정책 내용

- 페락주 타이핑시의 전기버스
 - 타이핑시의회(MPT)는 2023년 5월 1일 타이핑 문화유산 탐방로를 운행하는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 2015년 4월 10일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대표 관광자원 40곳을 타이핑 문화유산 탐방로(Jejak Warisan Taiping)로 지정
- 전기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타이핑 동물원~미얀마 수영장을 잇는 타이핑 문화유산 탐방로로 총거리 약 11.5km, 약 1시간 21분 소요
- 일반 승객 22명 장애인 1명이 탑승 가능
-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5시), 토요일과 일요일(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운행
- 고령자·관광객 편의를 높인 전기버스
 - 전기버스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고령자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
 - 고령자 요금은 성인 요금 20링깃(약 6,000원)보다 낮은 10링깃(약 3,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
 -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과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
 - 관광객의 방문지역을 다각화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마치노에키 말레이시아 프로젝트(MACHINOEKI Malaysia Project, MAP) 시행
 - 마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에서 장거리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휴식, 정보 수집, 교류 공간 수요를 충족하고자 만들어진 도로 시설
 - 일반도로에 휴식 시설, 상업 시설, 지역 진흥 시설을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정보 제공
 - 타이핑시의회와 말라야 국립대학교는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 최초로 일본의 마치노에키 프로젝트를 표방한 마치노에키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도입
 - 고령자·관광객의 보행권을 신장한 마치노에키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 이동 경로에 휴식 시설, 상업 시설, 지역 진흥 시설이 설치되어 보행성 개선
 - 타이핑시는 환경을 정비하여 고령자와 관광객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



[그림 1] 타이핑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전기버스 (출처: The Star)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2/10/11/malaysia-attained-ageing-nation-status/>

https://www.dosm.gov.my/uploads/content-downloads/file_20221215163848.pdf

<https://journal.unisza.edu.my/apj/index.php/apj/article/view/135/132>

https://www.asiaresearchnews.com/html/article.php/aid/11526/cid/2/research/science/university_of_malaya/the_implementation_of_machinoeki_concept_in_malaysia_historical_town.html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3/04/17/ev-bus-takes-to-the-heritage-trail-in-taiping-free-until-aug-1>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56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7월 24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